

대립성(Bi-polarity) : 역동적 평형의 원리

“대립성이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동이 트면, 사자는 눈을 번뜩이며 먹이를 찾아 헤매고 사슴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순간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는 광경이 매일 아침 펼쳐진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포효하는 포식자와 살기 위해 내달리는 먹잇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생존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세렝게티 초원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대립하는 두 개체는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며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립성(Bi-polarity)은 존재하는 물질의 구성과 움직임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수십만 가지 분자구조가 서로 밀고 당기며 살아 움직이는 것은 각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치들의 ‘대립성’ 때문이며,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물질이 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도 원자와 전자들이 서로 대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립성은 자연과 물질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인 것이다.

이것이 조직의 관점에서 함의하는 바는 크다.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립성은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조직을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에서 주어지는 적당한 스트레스(U stress)는 조직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수행결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자극이 없는 환경이나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스트레스(D stress)는 탈진을 유도하며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합리적 운영 시스템과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빈센트 바라바(Vincent Barabba)는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구분이 지배적인 현상을 “그리고”(and)라는 위대한 선(greater good)에 대한 “또는”(or)이라는 악의 승리라고 지칭했다. 대립성이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따라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뒤섞여 역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인내하며 지켜보는 능력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훌륭한 조직(Great Company)은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존재원리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에게 시장(market)은 세렝게티 초원과 같다. 그 위에서 함께 호흡하는 고객과 당근인(Carrotyans) 그리고 경쟁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창출하는 불확실성들이 곧 우리를 존재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Written by C.E.O 노상중 (James Roh)

Serengeti Plains, Tanzania



James Roh

